

‘지역 대도약’ 위한 성장기반 다졌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는 생태와 체험, 힐링의 메카로 임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 7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심민 임실군수가 밝힌 포부다.

5천억 예산시대의 발판을 마련한 임실군은 민선 7기 첫 2년 동안 재정 분야, 생활SOC 분야, 지역개발 분야, 관광 분야, 교육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며 군 대도약 발전을 위한 성장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에 전 국민 마스크 배부와 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군민들에게 ‘역시 임실’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 행복한 임실을 만들기 위한 임실군과 심민 군수의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주



옥정호 개발 조감도

▶ 인터뷰 - 심민 군수



“전 군민과 함께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 활짝 열 것”

민선 7기 임실군의 5천억 예산시대의 발판을 마련한 심민 임실군수는 “임실치즈 테마파크와 옥정호, 성수산, 오수외견 관광지까지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만들어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천만 관광객을 유입하는 핵심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심민 군수는 기반이 열약한 농촌 지역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예산과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 외부지원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발로 뛰는 행진으로 전략적으로 대응, 큰 성과를 이뤘다.

심 군수는 “민선 7기 지난 2년간 전 직원과 하나되어 임실군 대도약을 위해 매진했다”며 “그 결과 옥정호를 중심으로 한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발판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 발전사업을 토대로 지역의 장기발전을 이끌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형 공모사업 등의 선정을 위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실N치즈축제를 비롯한 사계절 대표축제를 적극 육성·확대하고 섬진강 에코뮤지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사계절 관광도시의 이름에 걸맞는 관광객 100만 시대를 목표로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5천억원 예산시대 발판과 대도약 기반 마련

군은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서 4,687억원을 확보해 5천억원 예산시대를 가시화했다. 심민 군수가 처음 취임했던 2014년의 2,886억원과 비교했을 때 62.4%가 증가한 괄목할만한 성과다.

심 군수가 재정기반이 열약한 농촌 지역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예산과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 외부지원 확보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군은 국가예산확보를 통해 임실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308억원), 임실 풍수해위험 생활지구 사업비(300억원), 강진이문지구하천정비사업(207억원), 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관거 개량(157억원), 임실치즈역사문화관 건립(80억원),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50억원) 등 군정 주요 현안을 해결했다.

이어 농촌협약 시범사업(500억원), 임실 섬가지구 전복형 도시재생 뉴딜(140억원), 임실을 행복누리원(120억원),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97억원), 농촌신활력 플러스(76억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48억원), 기초생활거점육성(4개소, 160억원) 등 굵직한 중앙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지역의 중장기 균형발전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생활SOC 시설 마련

발전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임실을 주민자치센터,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를 결합한 임실을 행복누리원이 선정돼 3년간 총 120억원(국비 4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오수면사무소 신축과 함께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을 결합한 오수면 행복누리원(100억원)의 선정을 위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62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42억원), 임실 행복누리원(44억원), 정신건강치매안심센터(23억원), 청유면 복지회관(20억원), 운안면 복지센터(11억원), 성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5억원)을 완공했다.

오는 8월에 개관을 앞둔 임실공공도서관(55.5억원)과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임실군 다목적체육관(76억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N치즈축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사계절 축제 확대

민선 6기가 들어선 지난 2015년 처음 개최된 임실N치즈축제는 매년 계속되는 대성공과 함께 임실군과 임실N치즈 브랜드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태풍 비타과 아프리카 페지열병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개막식 인파를 포함, 43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 우수축제’, ‘2020~2021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비롯해, 4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에 선정되는 등 이제는 전국의 남녀노소가 모두 찾는 전국 대표 지역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봄 의견문화제(5월), 여름 아쿠아 페스티벌(7~8월), 가을 임실N치즈축제(10월), 겨



긴급재난지원금 초고속 직접 배달

올 첫 추경예산서 4687억원 확보 5천억원 예산시대 가시화

임실N치즈축제, 지역 브랜드 전국에 널리 알리는 효자노릇 ‘톡톡’

‘전복의 보물’ 옥정호 중심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박차

코로나19 대응 정책 벌여 군, 재난지원금 직접 배달 시행

‘전복의 보물’ 옥정호 중심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박차

코로나19 대응 정책 벌여 군, 재난지원금 직접 배달 시행

‘전복의 보물’ 옥정호 중심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박차

코로나19 대응 정책 벌여 군, 재난지원금 직접 배달 시행

‘전복의 보물’ 옥정호 중심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박차

코로나19 대응 정책 벌여 군, 재난지원금 직접 배달 시행

‘전복의 보물’ 옥정호 중심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박차

코로나19 대응 정책 벌여 군, 재난지원금 직접 배달 시행

‘전복의 보물’ 옥정호 중심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박차

특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농번기 바쁜 농민들을 위해 주민들이 일일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지원금 신청과 전달을 공무원들이 찾아가 해결함에 따라 전국적으로도 큰 호응을 얻었다.

▲SOC 분야 현안 해결로 지역개발 토대 성과 사회기반 시설 중 도로개설 분야는 심 군수가 지난 2014년 취임부터 지금까지 국가예산확보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지난해 군 최대 현안이었던 임실 이도지구 병목지점 개선사업과 관련해 종전 35사단에서 보건의료원까지 700M 확장된 2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어 운중교차로 개선사업(150억원)이 국회 막판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는 큰 성과를 이뤘으며, 올해 실시할 예산확보를 통해 내년 초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실 신덕~신평 2차로 개량(551억원), 임실 정충~임실 2차로 개량(412억원), 임실 성수~진안 백운 2차로 개량(548억원) 사업이 제5차 국·도·군·지도 5개년 계획 1차 대상지에 선정돼 오는 12월에 최종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선점 위한 기반 강화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오수면 금암리 일대에 반려동물산업 거점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하반기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사업(50억원)이 선정된 후 현재 활발히 조성 중이다. 지난 해에는 전북도로부터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80억원)을 확보해 실시계획용역 중에 있다.

이어 내년에는 반려동물 국민여가 캠핑장 건립(20억원)을 준비하고 있어 최근 전국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는 반려동물산업에 선점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오수제2농공단지(198억원) 조성 면적 중 일부인 3만5,004㎡를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효율적 조직체계 마련·화려한 대외수상 이외에도 지난 2018년 문을 연 임실 봉황인 재학당의 안정적 운영과 농업정책과를 농업축산과와 농촌협력과로 확대해 지역경제 근간인 농업을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 조직관리를 해왔다는 평가다.

또한, 적극행정을 통한 속한 현안 해결 및 군정 추진을 기대하고 있으며, 청소위생과를 신설해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임실N치즈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전국 1위,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 전국 1위, 비상대비 훈련 우수기관 장관표창, 재해예방사업 추진실적 점검 우수기관, 전국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평가 최우수상, 노인일자리 평가 1등급,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농어촌버스 분야에서 최우수상 등 총 7개 분야에 걸쳐 우수한 대외평가를 받아 뛰어난 행정역량을 과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